

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2. 8. 24.)

여행용 캐리어, 시험대상 전 제품 내충격성 등 내구성 우수해

- 일부 하드케이스 제품은 소재 표시가 부정확 -

- 한국소비자원이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여행용 가방(6개 브랜드 8개 제품)을 시험한 결과, 시험대상 제품 모두 내구성이 우수했고 사용 중 색상변화나 색 묻어남이 적었다. 하지만 일부 제품은 소재 표시가 부정확했고 제품 간 보유 기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**(내충격성)** ① 가방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대한 국가표준인 KS 기준(30cm)보다 높은 90cm에서 떨어뜨린 결과, 파손 및 기능 고장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이 ‘우수’한 것으로 평가 ② 바퀴와 본체가 턱이나 모서리에 부딪혀 부러지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주행 내구성 시험에서도 변형되거나 파손된 제품 없음 ③ 가방에 손잡이가 견고하게 부착된 정도와 지퍼를 반복적으로 여닫을 때의 내구성을 KS 기준에 따라 진행한 시험에서도 전 제품에 변형이나 이탈 없음
- **(염색성 및 내긋힘성)** ① 염색성을 시험한 결과, 모든 조사대상 가방의 안감과 소프트케이스 제품의 겉감은 물, 마찰 등에 의해 색상이 변하거나 사용 중 묻어나는 정도가 적은 4-5급(색 묻어남이 적음)으로 확인 ②하드케이스 제품의 외부가 스크래치에 견디는 정도에 대한 시험에서는 약한 표면손상이 발생한 3급부터 표면손상이 없는 5급까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
- **(소재 정보 미흡)** 조사대상 제품의 소재가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, 하드케이스 가방 중 2개 제품에서 표시된 소재 외에 다른 소재가 검출
- 이번 결과는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기내용 캐리어 시험검사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 당시에는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다른 소재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·레저용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